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227

JCCT 2018-11-28

## 구한말 사립학교 병식체조교육의 민족주의적 특성 A Study on nationalistic character of private school's military gymnastic education in early modern Korea

김연수\*, 신의연\*\*

Kim Yeon-su\*, Shin eui -yun\*\*

**요약** 본고에서는 구한말 학교체육의 중심이 되었던 병식체조의 도입과 발전과정 다루었다. 특히, 일제의 강제하에 관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이 제한된 이후의 사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사실 1905년 을사조약이후 관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이 제한되었지만 사립학교의 병식체조는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의 민족위기의식이 더 고조되었고, 또 1907년 조선의 군대해산이후 무관학교 출신 교사들이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로 자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체육교사들은 병식체조교육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여기며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로 부임해 와서 학생들에게 병식체조 교육과 함께 민족주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 이처럼 매우 강한 부국강병과 조국수호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병식체조 수업은 학교체육 교육안에 속해 있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부국강병과 국가 침탈의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조화로운 신체발달을 추구하기보다 군사훈련의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체육교육, 구한말, 병식체조, 민족주의적 성격, 군사훈련, 독립운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military gymnastic education in early modern Korea. so deal with the process of Military Gymnastics between 1895, when modern public school in Korea was first established, and 1910, when Korea was deprived of its sovereignty by japan.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rawn from the study. The main idea of military style-gymnastics came from the consciousness of crisis caused by threat of the Japanese aggression. At that time, Korean realized the importance of physical education by this crisis consciousness. And Korean people was interested in physical education that they could not think of in traditional education. This Gymnastic class was much more like military training and has a patriotic character.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Early Modern Korea, Military Gymnastics, Nationalistic Character , Military Deciplines , Independence movement

### 1. 서론

근대시기 한중일 삼국에서 실시된 학교체육을 살펴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서구열강의 문호개방 요구로 위기에 처한 한중일 삼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구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이어 정치제도와 교육제도를 변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주저자)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7월 12일, 수정완료일: 201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13일

Received: July 12, 2018 / Revised: August 16, 2018  
Accepted: September 13, 2018  
\*Corresponding Author: yilian@hanmail.net  
Dept. of Exercise Rehabilitation, Hanil Univ, Korea

화시켜나갔다. 이 중 서구 교육제도 수용에 있어 한중일 삼국이 가장 신속하게 변화를 보인 부분이 바로 체육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구병력의 위력을 체험한 후 국권수호와 부국강병을 위해 미래의 군사력이 될 국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중일 삼국 모두 근대 학교체육 교육에 ‘병식체조’라는 용어가 출현한다. 이 ‘병식체조’는 단순 체조가 아니라, 서구의 영향을 받은 애국주의적 요소가 강한 군사적 성격이 강한 단체훈련이다. 그리고 일반 도수체조와 달리 제식훈련과 집중훈련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병식체조’는 18세기 중엽 독일에서 생겨난 군사주의적 성격이 강한 체조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된 것이었다.

당시 한중일 삼국은 지금의 체육 교과를 모두 공통으로 ‘체조’라 명명하였다. 지금의 ‘체조’가 체육 교과 하위항목임에 반해 당시 ‘체조’는 학교 체육 교과 가장 상위 개념이었다. 당시 한중일 삼국 모두 이 ‘체조’ 시간에 ‘병식체조’와 다른 체육활동을 교수하고 학습했다.

당시 조선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이듬해 1896년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는 등 이미 국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곳곳에 의병이 일어나고 있었고, 국권과 왕권수호를 위한 병력 증강이 가장 긴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외세의 감시 속에 합법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학교 안의 체육교육 뿐이었다.

구한말 학교체육 교육의 실시된 것은 근대화 된 교육령의 개정에 따른 ‘체조’ 과목의 교육현장 실천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민족이 강렬하게 소망 하였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 실현을 위한 군사훈련 성격을 담은 강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 구한말 학교체육 교육의 중심이 되었던 사립학교의 ‘병식체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를 공포하여 근대적 학교체육이 시작된 1895년부터 1910년 일본에 국권을 상실한 때까지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관공립학교에서 병식체조교육을 중단한 1905년 을사조약 이후와 조선의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이후에 더 주목하였다. 이 시기 사립학교가 어떻게 병식체조 교육을 유지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이는 현재의 체육교

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구한말 병식체조의 등장

### 1. 교육 근대화의 선두가 된 체육교육

원래 근대 체육은 개인의 자유와 유희 그리고 정정당한 스포츠정신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구한말 실시된 학교체육은 외적에 대한 전투에서 필요한 정신이 강조되었다. 이는 전인적인 체육교육이었다고 보기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하지만 이는 시대적 상황의 이유로 조선에서 근대적 학교체육의 목표는 군사력과 체력이 강한 애국주의 학생양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만 부국강병의 노력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체육 교육이 전개된 것은 1895년 2월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고종이 교육의 3대 강령인 德養 · 體樣 · 智養을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體樣은 動作에 常이 有호야 勤勵호므로 主호고 惰逸을 貪치 勿호며 苦難을 避치 勿호야 爾筋을 固케 호며 爾골을 健케 호야 康壯無病하나 樂을 享受호라.” [2] (체양은 동작함에 항상 유의하여 근면함을 주로 삼아 게으르고 안일함을 탐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대의 근력을 강하게 하며 그대의 뼈를 강하게 하여 건강하고 씩씩하게 무병하는 즐거움을 향유하라)

위의 내용을 보면 원래 고종 교육조서의 내용에는 부지런히 신체를 단련하여 건강을 유지하라는 체력양성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실제 체육교육에 애국이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고종이 군사력증강을 간절히 바랬음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그 해 1895년 관립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고 ‘체조’ 교과목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3] 이어서 이 ‘체조’ 교과목의 활동 중 하나에 속하는 병식체조 교육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권수호의 실천 방안이 되었다.

이 체조 교과목의 정규과목화는 이웃나라인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중국의 학교체육 근대화

과정에 있어 '체조과'로 정규 교과목이 된 것은 우리보다 늦은 1903년에, 필수 교과목화는 1922년에 이루어졌다. [4]

전통적으로 신체활동교육을 도외시 했던 조선에서 체육교육이 중국보다 앞서고 다른 교과목에 앞서는 교육 근대화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체육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보급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애국지사들의 강력한 주장과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시대의 긴박한 위기를 자각하고 국민의 체력양성과 학교안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합법적인 교육을 통하여 실천되는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루는 유일한 실천방안이라고 성토했다.

그 중 심의성(沈宜性)선생은 체력양성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조선민족을 지키고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그 방편중 하나로 《독립신문》에서 수차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위생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李沂)선생은 이례적으로 3육중 가장 중요한 것을 체육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 위생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소극적 입장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박은식, 최창렬, 문일평, 이종만 선생 등이 수많은 대중 연설과 투고 등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근대 체육교육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였다. [3]

이처럼 체육교육이 근대화 과정과 여러 교과목 교육 중에서 이렇게 앞서 발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 수호와 부국강병을 이루어야만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위기를 읽어낸 당시 최고 국가 권력이었던 고종이 조서를 발표하고 관공립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종의 조서발표를 전후로 하여 또 수많은 개화파와 애국지사들도 당시 사회의 체육활동 인식전환과 학교에서의 체육교육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애국지사들의 국민을 상대로 한 끝없는 인식전환의 노력이 상호간에 공공 협력이 이루어진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5]

하지만 일부에서는 구한말 조선의 학교체육이 자유

적 개인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애국주의적 군사적인 일면만 강조된 비정상적 교육이었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족의 위기 속에 도입되고 발전한 병식체조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잠정적 미래 병력 양성과 국민의 체력을 보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병식체조의 도입

위 일련의 과정을 통해 1895년 이후 조선의 관공립 학교에서 체조과목 교육이 실시되고, 하위 교육항목중 하나로 병식체조 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관공립학교에서 체육교사와 병식체조 훈련 교사는 전문체육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없었다. 당시 체육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의 현역장교가 체조교육(체육)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제국신문에 중학교에서 학부로 보고하기를 본 학교에서 운동을 당장 실시할 터인데, 교련하는 교사가 없으니 근부로 조회하여 무관학교 졸업인을 보내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6]

그래서 당시 초창기 관립학교에는 육군무관들이 체조교사로 겸직하였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06년부터 기존 관립학교 위주의 조선 병식체조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일제가 조선의 병식체조교육의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성격을 의식하고는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06년 통감부가 생기고 각 학교령이 공포되면서 고등학교(지금 중학교)의 병식체조과정만 남겨두고 모든 관공립학교의 병식체조를 보통체조와 학교체조로 바꾸었다.

그래서 실제 이전과 달리 1907년 이후로는 관립학교에 무관학교 출신의 교사들이 관립학교에 파견되었다는 문헌 기록이 없다. 대신 1908년 관립한성사범학교와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일본인 체조전문가들을 교관으로 부임해 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07년 군대가 해산 후 초기 병식체조교육을 담당했던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일선 사립학교의 교관으로 자원하게 되면서 사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은 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III. 사립학교의 병식체조 교육

일본은 조선 관립학교에서의 병식체조교육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식체조교육을 다른 체조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 1908년 교육과정의 실제적 통제를 목표로 하는 《학교체조교수서》라는 교재를 발행하였다. 이는 일본의 《體操遊戲取調報告》(1905)를 번역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 책의 서문에 ‘종래 학교에서 체조를 수업하는 병식체조의 일부를 교수함을 멈추고 학리에 기초하는 체육적 체조를 수업함이 거의 없음이라’하며 병식체조교육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공식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의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는 군사훈련성격의 병식체조를 소멸하기 위함이었다.

1908년 일본의 학부대신은 관보를 통해서 관공립학교의 병식체조를 제거하라고 경고하였다. 10월 일본인 학부차관 표손일도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병식체조가 학교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조선에서 병식체조를 일소시킨 이후에도 ‘병식교련’이란 명칭으로 자국의 병식체조교육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였다.

이어 1911년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고, 1914년 교수요목 반포를 계기로 체육을 필수 과목으로 제정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학교 체육이 정상화되고 체육교육 본연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국강병이나 국권회복과 멀어지는 결과였다. 이전의 체육교육이 국권수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후의 체육교육은 일본 제국 수호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 신민으로 육성하자’는 목적하의 교육제도 개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일제의 압력으로 인해 실제 1909년 이후부터는 관공립학교에서 ‘병식체조’라는 말이 모두 사라지고 ‘학교체조’라는 명칭만 남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상 일제의 영향을 덜 받는 사립학교에서는 1905년 이후에도 더욱 강화된 병식체조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중 일부 사립학교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교육구국운동을 목적으로 세워졌기에 이들 학교에서는 智育·德育보다 體育이 강조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민족의식고취 교육과 군사훈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병식체조를 매우 중시하였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규율이 엄격하고, 목총을 사용한 군사 훈련도 행하여졌다. 게다가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자원한 무관들이 이들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로 부임함에 따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게 된다. 자연히 이들 무관학교 출신교사들의 교수방법은 군대식 교육이었고, 철저한 민족주의적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아이러니 하게도 1907년 군대해산 이후 더 훌륭한 교사들을 확보한 사립학교의 병식체조 교육은 전성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성학의 논문 <군대식 학교규율의 등장과정과 사회적 기능> (교육사회학 연구, 2006)을 보면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사립학교 체조담당교사의 명단을 표로 정리해 놓고 있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체조교사들의 학력은 거의 육군 무관 학교와 육군 연성학교 출신이다. 이중 1903년부터 1910년 사이에 사립학교에 파견된 교사는 모두 17명뿐이다. [7] 하지만 이 숫자는 외부의 노출을 의식한 채 작성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근대의 사립 교육기관은 5,000여 교에 이르렀다. 이들 무관들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교사직을 수행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병식체조교사들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했음을 자연스레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은 체육교사로서만이 활약한 것이 아니라 체육과 함께 군사교육을 시키면서 투철한 민족의식을 생도들에게 고취하였다. 이렇게 사립학교 교육에서 상무교육과 함께 강인한 민족혼을 배양하기 위한 정신교육에도 노력하였다. [8]

또 국가 위기 상황속에서 가까운 미래의 보충병력 양성과 비슷한 수준의 강한 군사훈련 및 체력증진 훈련을 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부 사립학교들은 독립운동의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중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은 유명하다. 1908년 9월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의 설립이념은 ‘첫째,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여 인격완성을 목표로 함. 둘째, 애국정신이 강한 민족운동가 양성. 셋째, 실력을 가진 인재양성. 넷째, 건전한 체력훈련을 한다.’이다. 이중 네 번째 설립이념은 체력 훈련이 학교 설립이념중 하나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체력훈련 강화를 위해 구한말 군대의 교관이었던 정인목선생을 체육교사로 초빙하였다.

정인목 선생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

체육시간에 군대에 버금가는 훈련을 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냉혹한 추위, 폭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하게 훈련시켰다. 심지어 야간에도 학생을 비상소집하여 담력을 기르게 하였다. [9] 《도산 안창호 평전》에는 당시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업시간외에도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에 관한 훈화를 했고 수신·국어·한문·작문·역사·지리등과 같은 학문 이외에 군사훈련에 해당하는 체조를 중시했다. 체조시간에는 전술강의·제식훈련·기병·장거리 행군 등 체력 훈련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독립전쟁의 간부로 육성하고자 했던 뜻을 지켜 나갔다. 또한 체육시간에는 눈 위를 맨발로 걷는다든지 새벽에 비상소집하여 만수대나 청류벽 언덕까지 노래 부르며 행진 한 후 집단 체조를 실시하기도 했다.”[9]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도 이와 비슷하다. 이승훈은 1907년 정주에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바로 회심하였다. 상투를 자르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해 성탄절 전날 바로 오산학교를 시작하였다.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양성을 교육의 신념으로 삼았고 첫째 입학생은 일곱 명이었다. 최초의 교사는 여준, 서진순이었다. 그는 개교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선인들이 지켜 내려온 강토를 원수의 일인들에게 내맡긴다는 것이야 차마 있어서는 안된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일심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한다.” [10]

오산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른 학교와 차이가 없으나 각 학과와 학년 모두 체육과목을 개설하여 보통체조와 병식체조를 가르쳤다. 오산학교의 체조교사는 서진순, 박우병으로 이들은 모두 육군 무관학교 (연성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 한겨울에도 학생을 구보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군대식 제식훈련도 병행하였다. 이처럼 학교 체육시간에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험한 훈련을 하였음에도 불평하는 학생이 없었다고 한다. [3]

당시 이들 사립학교의 설립이념과 목적은 국민회복을 위한 민족운동가 양성, 민족의식 고취, 교육실천을 통한 항일운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성이나 오산학

교와 같은 학교들은 병식체조 교육을 통해 애국지사를 양성하고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 증진을 구체적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당시 사립학교들은 군사적 성격의 체육교육을 강조했기에 무관학교 출신들이 체육교사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이들 교사들이 가르치는 병식체조교육이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구한말 학교체육의 중심이 되었던 병식체조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특히, 일제의 강제 하에 관공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이 제한된 시기의 사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부국강병과 조국수호의 의미를 담고 시작한 병식체조 수업은 학교체육 교육 안에 속해 있지만 조화로운 신체발달을 추구하기보다 군사훈련의 목적이 더 강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후 관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이 금지되었지만 사립학교의 병식체조는 더 강화되었다. 이는 당시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이 본격화되었기에, 그 무엇보다 실제적이 병력강화가 필요했다. 또 1907년 조선의 군대해산이후 무관학교 출신 교사들이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로 자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체육교사들은 병식체조교육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여기며 학생들에게 병식체조 교육과 함께 민족주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안창호의 대성학교와 이승훈의 오산학교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립학교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후 더욱 심화된 민족의 위기를 인지하였다. 관공립학교가 일제의 제재를 받았던 반면에 사립학교들은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병식체조교육을 한층 더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구한말 학교 체육교육에서 실시되었던 병식체조는 단순 신체활동이 아니라 군사적 애국적 성격이 매우 강한 체육교육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지 못한 비 정상적 체육교육이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국권수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주의적 성

격이 매우 체육교육이었고,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차선의 체육교육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에 이학래는 《한국 근대 체육사 연구》에서 “구한말 민족주의적 체육사상은 국권상실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 내부의 자주독립 부국강병이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가치중립적인 근대적 체육사상을 변용한 것 이었다” 라 정리하였다. [3]

이러함에도 이러한 민족주의적 병식체조교육이 가져온 장점이 있다. 그것은 학교내 체육교과목이 등장하고 또 병식체조 교육이 체육교육의 중심이 되어 국권침탈의 위기 앞에서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근대교육의 등장과 동시에 체육교육이 강조된 것은 한국 체육 교육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유가적 전통적 교육에서 생각지도 못한 신체활동 교육이 처음으로 주요 교육 과목으로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 교육초기부터 병식체조라는 군사적 집체 훈련 성격으로 인하여 군대식 규율이 학교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그 뒤 한국의 남북한 대치상황과 군사정권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교련 등 다른 과목의 형태로 이 군대식 규율이 지속되었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는 구한말 의병활동부터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6·25전쟁,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등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희생 위에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근대와 현대의 이러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활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11]

본고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구한말 학교체육이 병식체조의 형태로 강렬한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특성을 띠었던 시기의 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방식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한말 사립학교의 병식체조의 교육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 받아야 할 민족주의적 체육교육의 역사적 사실이자 독립투쟁의 현상이었다고 생각한다.

2thmonth 2thday, 1895.

<http://sillok.history.go.kr/id/kza>

- [3] Lee Hak Rae, “A Study on the History of Modern Physical Education in Korea”, Ji-Sikindustry publisher, 1990.
- [4] Kim Yeon Soo · Shin Eui Yun, A Study on the Sports Revitalization of Chinese Society led by the Modern Church College of Korea, The society of China in Korea, Vol. 44, 2014.
- [5] Hyo Jin Kim · Woo Yeol Jung, Foster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 Testing the Impact of Police Legiti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4 No.4 38-44 (2016)
- [6] Sa Gong Hill, “A study of military Gymnastic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the Civilization Period of Korea(1895-1910)”, Journal of Korea Third Military Academy, Vol. 39, 1994.
- [7] Kim Seong Hak, “The appearance of the military disciplines in schools and its social functions 1880-1910”,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4); 2006, pp.51-91.
- [8] Sul, Gab-Suk , “A Study on natures of the modern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korea - Centered on the mtional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9(1), 1990.
- [9] Lee Tae Bok, critical biography of Anchangho, White Du-ru Publishing, 2012.
- [10] Kim Do Il, A Study on the Christian Education of Lee Seung-hoon’s Life and Education Activities in Nam Kang, Christian Education Debate, Vol. 38, 2014.
- [11] Mi - Sook Song, Su-Jin Bae,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exploring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2018), Vol. 4, No. 3, pp.15-26.

## References

- [1] Km Seong Hak, “The Birth of Modern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Science and publishers, 2014
- [2] The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Kojong Shilok, Vol.33, King Gojong 32th years of king Kojong,